

나하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전적지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구해군사령부호

항구 평화기념 - 잊을 수 없는 20세기의 상흔들로

문의
구해군사령부호사업소
 ☎ 901-0241 오키나와현 도미사로시 아자 도미시로 236번지
TEL (098) 850-4055 FAX (098) 850-9342
[URL http://kaigungou.ocvb.or.jp](http://kaigungou.ocvb.or.jp)
일반 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OCVB)
 ☎ 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오로후 1831번지 1(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층)
TEL (098) 859-6123 FAX (098) 859-6221
[URL http://www.okinawastory.jp/](http://www.okinawastory.jp/)

참관 기념 스탬프

구해군사령부호 액세스



구해군사령부호



Individual	¥ 600	¥ 300
Group (20 people or more)	¥ 400	¥ 200

※ Adults - high school students and older

※ Children -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Business hours

Open 9:00~17:00 Open Year Round

Last Admission 16:30

개관시간 (연중무휴)

8:30~17:30 (7월~9월)

8:30~17:00 (10월~6월)

■ 교통
아시하바시(旭橋) (나하 버스터미널 앞)에서 55, 88, 98번 계통으로 우에바루단치 마에 (宇栄原団地前) 하차. 도보 5분 나하공항에서 택시로 약 20분



구 해군사령부호의 사령관이었던 오타 미노루 소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은 미군의 맹공을 받아 1945년 6월 13일 밤 전총 자결을 했습니다. 아래의 전보는 오타 소장이 해군 차관 앞으로 보낸 오키나와 현민의 한심적인 작전 협력에 대해 호소한 것입니다.



오타 미노루 해군 소장

04-2001 표면 전보 1945년 6월 13일 20시 16분

반부호 오키나와군개비사령관

주보인 해군사관

아래의 경문이 해군의 친애에 알리고자 암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키나와 현민의 결정에 관해서는 원기사도무티 보고되어야 하겠지만 원은 아마

통신원들이 암으로 32군(오키나와 후미군) 사령부 또한 통신한 경우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위서사에게 부탁했을 것은 아니지만 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 여기에 대인하여 전급의 알리드라는 해입니다.

오키나와에 적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유태군 모두 방위를 위한 전투에 전력을 다해느라 정신 한편에 대해서는 끝에 유태군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한해 말씀드리자면 한편은 정신이나 군단 할 것 없이 모두 망회에 몽환되었으며, 남은 노인과 아이들과 이 가는 만이 경제없이 아이들은 조족으로 점차 예전의 풍토마리 간신히 남은 벌을 하나도 굳어 바칠 때까지 데려 암는 장소에서 각은 맹공을 예상

되던가니 조족의 아래에서 해제로 미안함에 노출되는 궁핍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다가 같은 여성은 자살적으로 굴에 몸을 던져 전호부, 취사부는 만물 것도 없이

포로를 옮기거나 전방에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서둘러 오른

도연에서 예민하는 주암을 달하고 아래는 후암에 물건을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 무모화

개작이 행여민을 깨끗하고 맛을 굳에 끌어가는 부끄러움 있습니다.

전호부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굳에 아동 사이에 위생병이 굴에 충분히 예의와 것

없는 중상자들을 도와 환세 해법에서 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역사적인 감정에 침범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다가 굳에 굳에 큰 번창이 있어 멀리

멀어진 주민들은 예상되었을 때 이동주민이 없는 사람들은 민중에 자제의 힘으로

맞속히 퉁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종 해보면 속해군이 오키나와에 손 아래로 현민은 자동부터

마지막까지 굴로 통서 물건 절약을 강요당하고 남리를 위해 통사를 한다라는 일념을

개습에 감상하면서도 굴의 보험판에 죽을 때 이 전투의 마지막을 뱋아헤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실정은 알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한 끼의 풍조지도

한 조각 마비의 박을 심었을 경우 6주를 단장해 놓았지만 암다라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현민은 이와 같이 악웠습니다. 현민에 대해서는 후에 특별히 배려해

주제가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경문은 원본을 원대문으로 고친 것입니다)

밤에는 모두를 지팡이를 가지고 걸었다. 시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진제공:나하 출판)

구 해군사령부호 JAPANESE NAVY UNDERGROUND HEADQUARTERS

1944년 일본제국(日本國)에 의해 째어진 사령부호로 당시에는 450m였습니다. 이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해군의 오로쿠(小禄)비행장(현재의 나하 공항)에서 가까운 깊은 언덕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군의 침보사격에도 견디어내고 적구성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령부호로서 경방이 주고 전투에 들릴 경우 육안으로도 적과 하고 관제를 잘하기 쉽다는 것과 통신선에서도 장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4000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후 활동한 방식으로 있었지만 수차례에 걸쳐 유골수습을 한 후(약 2,100명) 1970년에 300m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 지역에서 해반부이(火番兵)라고 불리워지는 곳으로 유태왕국시대 때 중국에서 오는 배나 미국선의 대장을 탐지하도록 빨리 유리실에 알리기 위해 공화를 올렸던 장소였습니다. 후 주변은 오키나와현이 운영하는 '카미군고 공원(御翠園公園)'으로 되어 있으며, 나하 시내와 도버구스루(高麗城) 세네 및 동중국해가 바라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장소로 나하공항에서도 가끔 가까운 전적입니다.



■ 호 입구 계단
105단 3.0m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면 통로로 가는 통로로 들어있는 호 입구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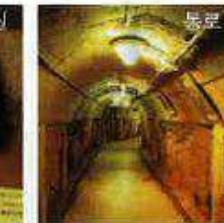


■ 막료실(幕僚室)
사령관실, 작전실과 가까운 이 방은 막료가 차질 할 때 사용했던 수류한 파란 흔적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령관실
사령관실의 벽면에는 '대군(大軍) 철학 세하'의 것 말 아래 죽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 오타 사령관의 애정가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 사령부호 내 약도 및 순로(順路) (→)



오키나와전 주요사항 연표 (1941년-1945년)

1941년 12월 8일	주주인 공격
1942년 4월 10일	제2회 오키나와 전투(군사작전)
7월 10일	도쿄(東京) 오키나와 대대 공습
7월 22일	제3회 오키나와 전투(군사작전)
8월 6일	제32군 사령관 경찰
8월 22일	우시자와 미쓰루 중장이 취임
9월 22일	하동군 폐포 소재지(大原村)에서 미군(米軍)에 침습
1943년 1월 1일	미국 해군 미사일(导弹) 실험(實驗) 실패
2월 15일	제32군, 원자 폭격 평화 소집
3월 15일	한국에서 대성사자(大聖者) 모임
3월 22일	제32군, 원자 폭격 평화 구원(平和救援) 시도
4월 1일	꽃이(花菱) 1명(1名), 1정(1正) 1신(1信)
4월 10일	13차, 14차 공습
5월 9일	도쿄 대공습
7월 29일	미 기동부대, 오키나와 본토 공격을 개시
8월 3일	미군, 미군, 미군을 포함
8월 7일	전기(電氣) 미군 오키나와 구원(救援)
8월 13일	해설부대가 오후노사와(元野澤)에서 국립 우시자와 사령관, 흐름(拂流)을 남는
8월 15일	미군, 우시자와 사령관
8월 17일	오키나와 해군 주부부대
8월 19일	대량폭탄(大爆弾) 호조류 전연 폭발
8월 26일	미군, 미군, 미군, 미군
8월 29일	미군, 미군, 미군, 미군
9월 10일	양은 정부, 미군, 미군, 미군
9월 15일	현장, 전진 조선군 미리오(未利偶) 통제
9월 22일	일본 정부, 미, 미, 미, 미리오(未利偶) 호재(ホセイ)
9월 25일	한국군(韓國軍) 조선
9월 27일	한국군(韓國軍) 수비군, 기여(寄附) 미 제10군
9월 28일	사령관에서 통보문서에 소인